



Issue Brief [No.13]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발행일 : 2016. 9. 23. 발행인 : 현혜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방안

이연화 ·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Issue Brief

Contents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개요 / 2
3.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개요 / 5
4. 제주지역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방안 /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앙정부는 2008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정책을 제도화하였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 기관으로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새일센터는 2009년 72개소로 시작하여 2016년 8월 기준, 전국에 150개소 설치·운영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연령·전공·지역별 특성 등에 따라 새일센터 이용층을 다변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5월 새일센터의 유형을 ‘일반형’, ‘경력개발형’, ‘농어촌형’으로 개편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2009년 새일센터 2개소(제주시, 서귀포시)가 지정되었고, 2016년 5월 ‘농어촌형’ 새일센터를 서귀포시에 신규 유치하여 총 3개소의 새일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농어촌형 새일센터가 유치됨에 따라, 도농 복합지역인 제주지역에서 기존의 일반형 새일센터와 차별화되는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형 새일센터 사업의 배경과 목적 등을 살펴보고, 도농복합지역인 제주에 신규 지정된 농어촌형 새일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개요

가. 센터 현황 및 주요 사업

- 2016년 8월 기준, 새일센터는 전국에 150개소 설치·운영되고 있음
 - 새일센터는 2009년 72개소로 시작하여 2010년 85개소, 2011년 98개소, 2012년 110개소, 2013년 130개소, 2014년 140개소, 2015년 147개소, 2016년 150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아가고 있음
-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상담에서 사후 관리까지의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1> 새일센터의 주요 사업



* 자료 : 여성가족부, 「201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지침」

- 새일센터의 주요 사업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고, 각 사업별 세부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음

<표 1> 새일센터의 세부사업

세 부 사 업	내 용
직업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욕구 수준에 따라 취업의욕 고취, 취업기술 향상, 직장 적응, 직장 재복귀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 양성 훈련 과정 : 일반과정, 전문기술 과정, 기업맞춤형 과정, 창업 과정, 취약계층 과정 등 운영 훈련 내용 : 직업전문 교육, 직무소양 교육, 취업 준비 교육 등
취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십 지원 : '16년 총 6,179명 목표 (기업체 및 인턴에게 지원금 지급) - 새일여성인턴 지원 : 경력단절여성 대상 / 주당 35시간 / 3개월 / 1인 300만원 한도 - 결혼이민여성인턴 : 결혼이민여성 대상 / 주당 30시간 / 3개월 / 1인 300만원 한도 인턴십 연계 대상 기업 :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1,000명 미만 ※ 기업특성상 5인 미만의 사업장 연계가 불가피한 경우, 증빙 후 연계 가능
취업 후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인 구직자 취업연계와 안정적 직장생활을 위해 취업자 및 채용기업 대상 사후 관리 지원

* 자료 : 여성가족부, 「201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지침」의 내용 재구성

나. 새일센터의 다변화

- 2009년 시작된 새일센터는 연간 10만명 이상 취업 연계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력 단절여성 규모에 비해 실제 센터 이용자 수는 11% 정도에 그치고(2013년 기준, 196만명 대비 이용자 21만명), 새일센터 주 이용층이 40·50대 여성에 집중되어 경력단절여성의 연령, 전공,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이에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여성의 특성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새일센터의 유형화 논의 및 연구(여성가족부, 2012)¹⁾를 바탕으로 2014년 유형별 센터 지정 및 시범 운영, 2015년 5월 일반형,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광역형 센터로 개편하기에 이르렀음(<표 2>참조)

<표 2> 새일센터 유형별 사업 내용

유형	내용
공통	• 경력단절 여성의 종합적 취업 지원
일반형	• 경력단절 여성의 종합적 취업 지원
경력개발형	• 특정 전공, 경력을 보유한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 지원
농어촌형	• 농어촌지역 내 거주하는 여성 대상 취·창업 지원
광역형	• 지역 내 새일센터 역량 강화,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새일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자료 : 중앙여성새일지원본부 내부자료(2016) ; 여성가족부, 「201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지침」

- 2016년 8월 기준, 전국 새일센터 150개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형 126개소, 경력개발형 8개소, 농어촌형 6개소, 광역형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표 3> 시도별 유형별 새일센터 지정 현황(2016.8.)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50	27	10	4	8	5	4	2	1	26	8	7	10	9	9	8	9	3
일반형	126	25	9	4	-	5	2	2	1	20	7	4	8	7	8	7	8	2
경력개발형	8	2	-	-	-	-	1	-	-	4	-	1	-	-	-	-	-	-
농어촌형	6	-	-	-	-	-	-	-	-	-	1	1	2	1	-	-	-	1
광역형	10	-	1	-	1	-	1	-	-	2	-	1	-	1	1	1	1	-

*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1) 여성가족부, 2012. 「새일센터 유형별 특성별 사업운영 모델개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9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서귀포여성새일하기센터를 유치하였고, 각각 제주YWCA(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서귀포 YWCA에서 위탁·운영해 오고 있음
 - 2015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총 1,691명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였고, 집단상담(447명), 직업훈련(255명), 찾아가는 취업설계(4,452명), 새일여성인턴(96명)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자료)
 - 기존 두 새일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사무지원교육, 방과후 보육교사양성, 온라인 쇼핑과 판매를 위한 IT관련 기술교육, 중국어교육, 행정·교육·호텔관리사·향토음식 조리사 등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다변화 추세에 따라 2016년 5월 농어촌형 새일센터를 신규 유치함

3.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개요

가. 농어촌형 새일센터의 목적 및 현황

- 농어촌형 새일센터는 농어촌 지역 내 거주하는 여성 대상 취·창업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의 농어촌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농가 인구의 절반가량이 여성이고,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어촌 내 2·3차 산업의 성장 및 6차 산업의 증가 등으로 여성 일자리가 다양화 되는 추세임. 그에 따른 여성의 취·창업 욕구도 증가하고 있음
 - 농어촌의 산업 특성의 변화와 여성의 취·창업 욕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여성의 취·창업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 기회는 부족한 실정임(여성가족부, 2012)
 - 이에 농어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농어촌형 새일센터의 주 목적이 되고 있음
- 2016년 8월 기준, 농어촌형 새일센터는 전국(충북 1, 강원 1, 충남 2, 전북 1, 제주 1)에 6개소이고, 모두 2014년~2016년에 지정되어 운영기간이 짧은 편임

〈표 4〉 농어촌형 새일센터 지정 현황 (2016.8.)

지역	센터명	비고
충북	영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09년 지정, 2015년 농어촌형 전환
강원	영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4년 지정
충남	부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3년 지정, 2015년 농어촌형 전환
	홍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5년 지정
전북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5년 지정
제주	한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6년 지정

* 자료 : 중앙여성새일지원본부 내부자료

나. 농어촌형 새일센터의 특화 영역

- 여성가족부는 2016년 농어촌형 새일센터에 대한 시범 평가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농어촌형 새일센터 평가 지침을 마련하였음(중앙새일지원본부, 2016)
- 농어촌형 새일센터와 일반형 새일센터의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 영역, 배점, 지표(중지표, 소지표) 등의 전반적인 구성은 유사함
 - 평가 영역(배점) : 사업수행역량(5), 상담서비스(19), 직업훈련 및 인턴운영(15), 취업성과(45), 사후관리(6), 고객만족도(10), 가점(5)
- 농어촌형 새일센터와 일반형 센터 간에 차별화되는 영역은 「취업성과」 영역 및 「가점」 영역이고, 두 영역 모두 “창업” 지표를 차별화하고 있음
 - 「취업성과」 영역 : 일반형 새일센터는 “취업실적”과 “고용안정성”이 평가지표로 구성되는 반면, 농어촌형 새일센터는 “취업실적”과 “창업실적”이 평가지표로 구성됨
 - 「가점」 영역 : 일반형 새일센터에는 “고용복지센터 참여” 및 “45세 미만 구직자 발굴 실적”이 포함되지만, 농어촌형 새일센터의 경우 “창업사업체 총 매출액”이 가점으로 포함되고 있음(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중앙새일지원본부 2016)
- 요약하면, 농어촌형 새일센터는 농어촌 여성의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향후 제주지역 농어촌 새일센터 역시 농어촌 여성의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4. 제주지역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방안

가. 지역 여건

- 제주지역의 경우 ‘올레길’, ‘제주밭담’, ‘제주해녀’ 등 청정 자연의 이미지가 지역 브랜드로 급부상하고 있음
- 농어촌의 경우 제주농촌의 청정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2·3차산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현장소비형) 6차 산업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적 여건에 발맞추어 농어촌 여성의 취·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농어촌 실정에 맞는 새로운 여성일자리 발굴과 연계된 취·창업교육·사후 관리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나. 추진 방향

- 제주지역 농어촌형 새일센터는 도내 농어촌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특히 기존의 일반형 새일센터와 차별화하여 제주의 잠재된 농어촌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농어촌여성의 다양한 일자리발굴과 농가형 소규모 6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단기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먼저 단기적으로는 농어촌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해 창업아이템 발굴, 품앗이, 계절노동, 공동체 연대활동 등 농어촌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전을 지원하도록 함
- 또한 1차산업 생산물의 가공·유통을 비롯하여, 문화관광, 지역개발과의 연계 등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의 구인·구직자 수요에 맞는 맞춤형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중장기차원에서는 농어촌 6차산업 창업농가의 생산제품의 고품격화와 온라인 마케팅망 확보를 지원해 창업농가가 여성일자리를 확대 보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더불어 선진형 농어촌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력 있는 농어촌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다. 세부 방안

1) 농어촌 지역 주요 타겟 업체 및 취·창업 희망 여성 발굴

○ 제주 읍·면대상 마을업체 및 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구인처 발굴·관리 운영

- 새일센터에서는 농어촌 지역 마을업체 및 기업체가 원하는 여성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제주 읍·면 마을업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구인 수요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수요조사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구인상담을 실시해 구인처를 발굴 및 관리·운영하도록 함

○ 제주 농어촌 전 지역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

- 농어촌형 새일센터는 농어촌 거주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함. 이에, 현재 제주의 농어촌형 새일센터는 지리적으로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비스 대상 여성을 서귀포시 인근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43개 읍면동 중에서 제주시는 7읍면·19동, 서귀포시는 5읍면·12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농어촌형 새일센터는 서귀포시의 5읍면, 제주시의 7읍면에 거주하는 여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농어촌형'센터임을 홍보하고 사업대상 여성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016년 7월 기준, 제주시 7읍면 거주 여성 인구는 51,044명(추자면, 우도면 포함), 서귀포시 5읍면 거주 여성 인구는 37,957명으로, 총 89,001명임. 이 중,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 이상 여성 인구는 약 84%로 약 75천명 규모임

○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형 직업훈련 수요 여성 발굴 및 서비스 확대

- 읍면동 거주 여성을 우선 지원 사업 대상으로 할지라도, 제주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을 차차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이 경우에 기존의 일반형 새일센터와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사업 대상 여성을 타겟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임
- 예컨대, 동지역 거주 여성 중에서 1차산업에 관심 있는 귀농·귀촌 여성, 6차산업 분야에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우선 타겟 대상으로 하는 등의 차별화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음

2) 농어촌 여성 취·창업 협력 네트워크 구성

○ 농어촌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성·운영

-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대상 여성을 발굴하여 이들의 취·창업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협력 도출이 중요함
- 네트워크 구성은 정부 및 취업지원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정보 및 자문 기관 등 기관 유형에 따라 발굴 및 각각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시 동·서부, 서귀포시의 세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 협력망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정기적인 네트워킹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서비스의 대상이 농어촌 지역 여성들이므로 지역 내 여성농업인센터(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4개소)의 인프라와 연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직자 모집, 교육훈련 수요 파악, 찾아가는 직업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활용 등의 교육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표 5> 농어촌 여성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운영 방안

유형	대상	운영 방법
정부 및 취업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및 행정시 관련 부서 : 여성인력개발, 농림수산업, 경제정책, 지역산업 육성, 기업지원 관련 부서 • 지역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제주시·서귀포시 새로일하기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협약 체결 • 제주시 동·서부, 서귀포시 3개 지역에 유관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력망 구성 • 정기회의를 통하여 지역 여성과 기업의 취창업 수요 파악 및 연계
민간단체 및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성단체(여성단체연합회, 여성농민회, 여성경제인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부인회 등) • 6차산업 분야 지역산업(식품, 화장품 등), 마을기업, 향토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정보 및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테크노파크(제주지역 6차산업 육성)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창업지원 관련 단체 등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 농어촌 지역 찾아가는 구인·구직 발굴 및 상담 제공

○ 농어가·마을기업 대상 구인·구직 발굴 및 찾아가는 상담 제공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여성화를 고려할 때 여성 농림어업인들의 농번기 인력수요에 대한 욕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사계절·복합영농으로 농촌지역의 농사인력부족의 문제는 제주지역의 경우 심각한 실정임
- 제주시 7읍면과 서귀포시 5읍면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농번기 구인·구직 신청을 미리 예약제로 받아 구인자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노동인력을 제공하고 여성구직자에게는 예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농촌지역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
- 이를 위해 새일센터 내 구인·구직을 위한 특정 전화번호를 지정해 상담할 수도 있으며 농림어업관련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력은행을 운영해 구인·구직을 발굴 할 수도 있음
- 또한 농어촌 여성이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센터로 찾아오는 구인·구직 상담을 넘어 농어촌 지역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 농촌체험교육사업장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구인 발굴

- 농촌지역의 경우 농촌체험교육에서는 ‘일일 농어촌 체험 교사’ 그리고 마을기업에서는 저임금의 사무인력을 고용하기 원함. 따라서 농촌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구인상담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농촌지역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업장에서 강사 또는 사무원을 요구할 때 즉시 연계할 수 있는 구직자 관리도 필요함

4) 농어촌형 취·창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농어촌 여성 대상 직업훈련 및 취·창업 수요 조사

- 농어촌 여성 맞춤형 취·창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들의 교육훈련 및 취·창업 수요 파악이 필요함. 따라서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전에 제주도 농어촌 여성들이 원하는 직업훈련과 취·창업 수요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농촌지역 여성들은 농가소득확대를 위해 창업을 원하지만 운영관리 및 전반적인 창업관련 절차를 몰라 창업을 하지 못한다고 밝힘(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6)²⁾
- 따라서 농어촌 새일센터에서는 창업시 복잡한 행정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행정관리자를 육성해 농촌지역 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6차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 소농의 경우 농사로는 거의 수익이 없어 직거래장터를 통한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가 농가 수익에 기여할 수 있음
- 6차 산업관련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 마케팅, 직거래, 소비자관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농촌지역 여성에게는 필요할 것임

2)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6.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 농가인턴십 운용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제주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2차산업이 적고, 특히 도시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적어 농촌지역에서 현실적인 인턴참여 실적을 높이는 어려운 실정임
- 여성가족부의 평가지침에는 농촌지역 여성의 농가경영체 등록을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1차산업이 많은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농가경영체 등록증이 있는 농가에 신규농사를 짓기 원하는 여성이 취업한 경우 인턴 참여로 인정받도록 여성가족부의 인턴십운영 지침을 바꾸도록 제안하는 것도 필요함

5) 창업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창업 사후관리 서비스

- 현재 새일센터의 사후관리 서비스는 취업 연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촌형 새일센터는 일반형 새일센터와 달리 창업 실적이 평가지표로 포함되기 때문에 창업과 창업 매출을 지원하는 이원화된 창업지원 사후관리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생들을 중심으로 창업동아리 결성, 창업 과정 컨설팅, 창업관련 공모전 참여지원, 창업 박람회개최 등 창업 지원과 관련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통합적 창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창업 매출 사후관리 서비스

- 창업 매출 사후관리 서비스는 초기 창업자를 중심으로 동아리 결성 및 성공한 창업자와의 멘토링 운영, 판로개척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창업관련 행정지원 등 여성 창업자가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